

# 목포에 닷 내린 해상 실크로드 보물선

목포 해양전시관 내년 3월4일까지 '대항해시대-아시아 도자기'전

## 난파선서 발견된 도자기 중심 베트남·중국·태국 등 309점 아시아 청화백자 비교 재미도

8세기에서 20세기 초 아시아와 유럽을 오간 무역선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실려 있었다. 당시 해상실크로드 황금기에는 도자기를 비롯한 생활 물품이 무역선에 실려 유럽으로 전파됐다.

1990년대 이후 베트남 해역에서 발견된 5척의 난파선에서는 수십만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베트남의 수중고고학계는 1990년 호찌민시 근해의 17세기 '혼까우 난파선' 발굴을 계기로 지금까지 15차례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굴된 도자기는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로 수출되었던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의 유물로 파악됐다.

대항해시대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아시아 도자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지난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 4일까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국제교류전을 개최한다.

'대항해시대, 바닷길에서 만난 아시아 도자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류전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해상실크로드의 황금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전시는 모두 5부로 구성돼 있으며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아시아 도자기 309점이 전시된다.

제1부 '대항해시대-베트남 바다를 향해하다'에서는 베트남 해역에서 발견한 난파선 모형을 비롯 동아시아 해상교류가 활발했던 베트남 해역의 전반적인 모습을 당시 지도와 함께 소개한다.

제2부 '해상실크로드, 아시아 청화백자로 물들다'에서는 아시아 해상교역의 꽃이라 불릴만한 도자기류와 그중에서도 푸른빛의 문양이 아름다운 청화백자를 선보인다. 특히, 조선 시대 청화백자도 함께 전시해 동시대 아시아 청화백자 제작 기술과 시대적 아름다움, 소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 도자기 무역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됐다. 제3부 '베트남 도자기,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다'는 15세기 난파선인 '꾸라오참'에서 나온 유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13~18세기를 아우르며 터키와 이집트로까지 확대된 베트남 도자기 무역의 실상을 가늠할 수 있다.

제4부 '시누아즈리-유럽에서 중국도자기를 향유하다'에서는 16세기 유럽에서 불었던 '시누아즈리'(중국문화라는 뜻)의 열기에 초점을 맞춘다. 당시 유럽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출발했던 난파선 '빙투안'에서 나온 중국 도자기들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5세기 태국 도자기들도 볼 수 있다. 제5부 '태국 도자기-베트남 바닷길에서 만나다'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 수출되었던 15세기 태국 도자기가 주인공이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베트남과의 우의를 다지고 상호간의 해양문화유산의 연구와 문화교류를 단단히 다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과 친린했던 아시아 바닷길과 해상 실크로드를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베트남 꾸라오참 난파선 청화백자 (15세기)



명 왕조 빙투안 난파선의 청화백자 모란무늬 접시



조선시대 청화백자 봉황무늬 향아리

## 해남 동리마을엔 자연 닮은 민초들이 산다

### 윤재걸 시집 '...해남 유토피아' 내일 출판기념회

언론인 출신 윤재걸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유배공화국, 해남유토피아'(실천문학사·사진)를 펴냈다. 지난 85년 두 번째 시집 '금지곡을 위하여' 이후 33년 만에 발간한 이번 시집은 2008년 해남 옥천면 동리 마을로 귀향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귀거래사'다.

시집에는 고향에서 자연과 민초들의 소리를 깨달으며 느낀 지혜와 감성이 오롯이 담겨 있다. 그렇다고 시인은 음풍농월만을 읊는 것은 아니다. 문학평론가 이경철이 "전원에서 자연과 그런 자연과 꼭 닮은 민초들과 어울리는 삶에서 우러나온 시집"이라고 평한 것처럼, 각각의 시에는 인간사와 자연의 순리 그리고 역사의 진보에 대한 바람이 투영돼 있다.

또한 고향 정서의 회복과 아울러 현대사에 깊숙이 발을 담갔던 인생역정을 담은 작품도 수록돼 있



다. 숨겨진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던 언론인 특유의 시각은 '순정한 혁명의 서정'으로 일한다.

윤 시인은 "고산 윤선도 선조의 피를 이어받은 저는 좋게 말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선비정신이 남보다 좀 달랐던 것 같다"며 "참된 리얼리스트로서의 시인의 길을 앞으로

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판기념회가 내달 1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열린다. 문의 010-6332-723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시와 음악이 흐르는 보성 콘서트' 내일 채동선음악당

'시가 흐르는 행복학교'(이창수 이사장)가 12월 1일 오후 2시 별교채동선음악당에서 '제10회 시와 음악이 흐르는 보성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터질림(대표 이지영)이 '민족음악가 채동선 선생 추모음악회'를 선보이고 세명대 이혜진 교수가 '20세기 초 한국음악의 감성과 채동선 음악의 문화사적 가치'를, 광주대 박일우 교수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발전 연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이창수 이사장은 "시와 음악이 흐르는 보성 콘서트가 어느덧 10회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의 소중한 무형자산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가 흐르는 학교'는 3년 전 이창수 시인이 보성 북재 한국차박물관 내 품평회실에 인문학교를 열어 지역민에게 무료 강의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까지 9번의 콘서트를 개최해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역사, 문화 관련 인문학 강의를 제공했다. 또한 '달살이 의병장 안규홍', '단군의 아들' 등 여섯 편의 문학극을 만들어 광주, 서울 등지에서 순회공연을 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부대끼며 돌고 도는 아시아인의 삶

### 12월2일~3일 문화전당 아시아무용단 '히어테어'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아시아무용단의 공연 'HereThere'(사진)를 오는 12월 2일 오후 5시, 12월 3일 오후 3시 ACC 예술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품 'HereThere'는 캄보디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10개국 대표 18명의 무용수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 퍼져 있는 '원무(Circle

Dance)'중 하나인 강강술래를 차용하여 전통과 현재의 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무용수들은 과거의 강강술래와 현재의 모습을 연결지며 지나간 시간과 사라진 공간을 한 무리의 몸짓으로 표현한다.

또 무용수들의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이 담긴 몸과 몸짓은 춤을 통해 충돌되고 조우하며 지금

까지 감춰져 있거나 찾지 않았던 색다른 모습을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아시아 각국 무용수로 구성된 아시아무용단은 2011년 창설된 아시아무용위원회를 통해 2015년 창단됐으며 올해로 3회째 워크숍 및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은 온라인 사전 예매 또는 현장발권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01-4036. /전은재기자 ej6621@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명 1등
-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